

강임준 군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분주

기재부 예산심의 이달 내 마무리... 주요사업 반영 위해 구운철 2차관과 면담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역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기재부 단계 막바지 예산확보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

심의가 이달 내 마무리 될 계획으로 주요 핵심사업 반영을 위해 강임준 시장이 기재부 구운철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강 시장은 군산시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주요 예산 반영 건의에 대해 주력했다. 먼저 군산국가산단 일원 7만평에 중고차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수출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단지를 구축하는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산차의 지난 2018년 중고차 수출 실적이 일본대비 27.2%로 저조한 원인을 국내 중고차의 소규모 매매상 개별거래 형태와 공인 인증 체계의 미확립이라고 설명하면서, 군산에 중고차 품질인증센터를 포함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해 국내산 중고차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중고차 산업 육성은 물론 연간 1,691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및 436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했다.

이어 중고차와 연계된 자동차 대체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건의를 이어갔다. 자동차대체부품은 전세계 판매량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적기에 부품 산업 국산화를 활성화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에 잠식될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군산에 소재한 한국GM 협력업체들의 축적된 보유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대체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각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자금 역의 유통 방지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성과를 설명하면서 연내 정부 목적에 비비를 통해 국비 추가 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등 막바지 기재부 단계 주요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 활동에 주력했다.

강 시장은 "기재부 단계 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시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겠다"며 "향후 국회 단계 심의 준비를 위해 인적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요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9월 2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심의가 이달 내 마무리 될 계획으로 주요 핵심사업 반영을 위해 강임준 시장이 기재부 구운철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익산시, 제3대 명예농업시장 정명채 대표 위촉

익산시는 12일 제3대 명예농업시장에 한국농어촌 복지포럼 대표인 정명채 박사를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정명채 대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에서 대통령지문 정책기획위원,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현 정부 농정공약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농업부문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지역에서 명예농업시장을 수행하며 농업인에게 높은 인지도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새 정부의 농정 흐름을 정확·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농업에 집중시키고 농업을 통한 익산시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채 시장은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이 농업인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큰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미래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현장포럼,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지문 및 정책을 위해 미래농정자문단 운영하고 있다.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농촌현장포럼 및 미래농정자문단을 이끌며 농업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풍부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등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익산 농정의 선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정부 추경 공공일자리사업 추가 확보

국비 60억원, 총 사업비 71억원으로 943명 고용

군산시가 국가예산 60억을 추가로 확보해 고용위기지역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서 3개 일자리사업 국비 60억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71억원으로 943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먼저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지난 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추진해 온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올해 1차 1,300여명에 이어 2차 사업으로 국비 56억

원을 추가 확보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837명이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4개월간 22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추경에 국비 2억3천만원 확보로 56명이 추가로 확대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말 9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올해 12억원으로 79명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이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 신청 한 결과 국비 1억7천만원 확보해 50명의 청년일자리 확대 추진하게 된다.

군산시가 이러한 일자리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로 진행하게 되는 일자리 사업은 단기 공공일자리지만 취업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25개소 운영 물가안정 앞장

지립도시 군산시는 신규 4곳을 포함해 2019년 착한가격업소 25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4개소는 머리박사(나운동), 일신육(월명동), 이포크정육식당(삼학동), 한우네소곱창(나운동)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기 지정 업소와 신규로 신청한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시 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 현장점

검 등을 실시해 가격, 위생, 서비스 등의 적격 기준 유지여부를 확인해 최종 25개소(신규 4, 기지정 21)를 지정했으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20, 이미용업 3, 목욕업 2개소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포탈 교부, △시정 홈페이지, 블로그, SNS, 시정소식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립도서관 열린시민교양강좌 14일부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익산시립도서관은 오는 14일부터 2019년 하반기 열린시민교양강좌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열린시민교양강좌는 도서관에서 시민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는 동화구연지도·문예창작·할링문화여행 등의 독서관련 강좌에서부터 기타·플루트·우쿨렐레 등의 악기강좌, 서예·다카시노교실·어르신왕초보컴퓨터 등의 취미 및 컴퓨터 강좌, 독서지도사(자격증반) 및 엄마표 영어나 자격과정 등 총 29개의 다채로운 강좌가 진행된다.

특히 주간에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캘리그라피, 다카시노교실, 아동 미술 지도사(자격증반), 홈스케치, 기타 등 총 7개의 야간강좌도 마련됐다.

수강료는 주 1회 강좌 2만원, 주 2회 강좌는 4만원으로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모현도서관 ☎859-37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직원들이 먼저 인구감소 위기의식 가져야”

정현을 시장, 인구관점서 모든 정책 점검 지시

정현을 익산시장이 1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모든 정책을 점검하라고 주문하며,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이 프로젝트와 같은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우리시 인구감소에 대해 직원들조차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아파트 수급조절, 귀농귀촌 정책 등 모든 정책을 인구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고, 각 부서는 소관업무 중 인구가 요인과 관련된 사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정책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 프로젝트와 같은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연이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새로운 인구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최근 약취·환경문제가 우리시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주부터 약취상황실 근무자를 증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는 간부공무원들이 포함된 특수기동반을 운영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간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착수 발전방향 제시

군산시가 확장적 개발중심에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으로 전환된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변화하는 도시여건을 고려한 장기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2040년 목표연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금년말 초안 마련을 위해 과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과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정책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동안의 확장적 개발중심에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구 구조변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